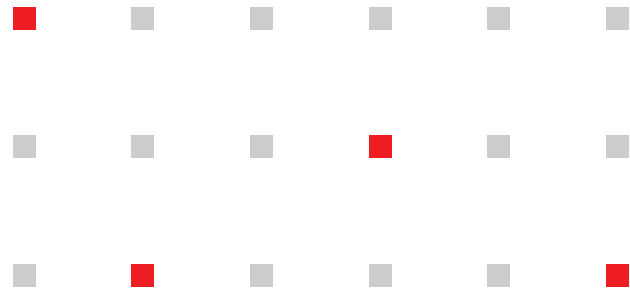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구축



연구진 **임승현** 부연구위원(공학박사)
shlim@jd.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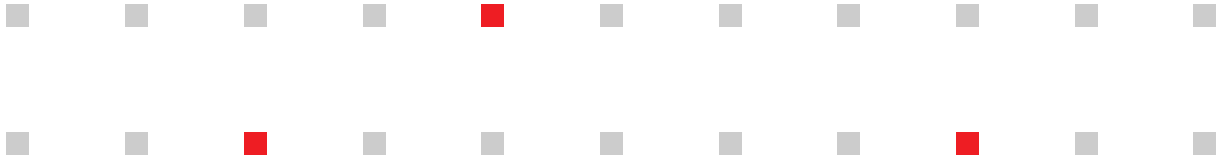
제1장 |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개요

제2장 | 명품 마실길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3장 |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세부 내용

제4장 | 사업 추진 방안

〈부록 1〉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 사례



Contents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구축

I.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개요	3
1. 마실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3
2.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란?	4
3.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의 필요성	4
4. 길 관련 IT 정보서비스 구축 동향	5
II. 명품 마실길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6
1.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6
2. IT기반 Safety-탐방환경 조성	6
3. 모바일기반 마실길 관광정보체계 강화	7
III.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세부 내용	9
1. 마실길 탐방정보 GIS DB 구축	9
2. 웹기반 마실길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9
3.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구축	10
IV. 사업 추진 방안	11
1. 핵심 성공요소	11
2.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11
3. 추진주체 및 사업비 확보 방안	12
4. 기대효과	13
<부록 1>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 사례	14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개요

1. 마실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 여행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도보여행 활성화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2009년부터 마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은 100억원(도분 광특 50, 시·군비 50)을 투입하여 총 연장 450km를 조성 중에 있음. 또한, 2013년까지 11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연장 1,100km의 마실길을 조성할 계

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선정비, 편의시설 설치, 길지도 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 전 지역을 해안생태축, 하천생태문화축, 역사문화생태축, 자연생태문화축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연결하여 광역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은 광역축으로 모악산길(56km), 백두대간길(92km), 서해안해변길(64km)이 조성 중에 있음



〈그림 3〉 전라북도 광역마실길 조성 현황

2.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란 ·

- 슬로우 라이프(Slow Life)가 현대인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웰빙(Well-being) 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걷기 열풍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걷는 길 조성사업이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향천리 마실길」사업 노선을 대상으로 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GIS DB화, 유지관리시스템, web을 통한 체험 및 안내서비스, 모바일 스마트 폰 서비스 등을 구축함으로써 마실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탐방객 유치를 촉진하는 사업임

3. 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의 필요성

- 전라북도의 마실길에 대한 걷기 정보는 2010

년 구축된 예향천리 마실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소재하고 있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선별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고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는 길 조성」 사업은 2010년에 들어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2010년 7월 국토해양부는 3월부터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추천한 168개 노선을 대상으로 동·서·남해안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52개소(총 505km)의 아름다운 해안길을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이, 이미 걷는 길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길과 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한 상세한 탐방정보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환경조성, 노선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을



〈그림 1〉 예향천리 마실길 홈페이지(www.masilgil.or.kr)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걷기 문화의 퇴조 및 탐방객의 감소에 따라 조성된 길이 사장되거나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마실길이 우수죽순처럼 조성된 전국의 수많은 길과의 경쟁에서 명품길로 거듭나고 지속적으로 탐방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신 IT기술과 접목한 이색적이며 안전한 스마트워킹로드(Smart walking road)를 만들 필요가 있음

4. 길 관련 IT 정보서비스 구축 동향

- 제주올레 DMB 모바일 서비스
 - 전국적인 걷기 열풍의 시발점이 된 제주올레에 관한 코스 정보를 제공하는 DMB 모바일 서비스시스템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도 융합형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선정됨

- 제주올레 DMB 모바일 서비스는 2010년 11월까지 제주올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고풍길 영상으로 제작하고, 코스 지도, 관광정보 등을 뉴미디어인 DMB 2.0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임
- 지리산길 Web GIS 걷기정보 서비스
 - 지리산길은 노선 전체에 대한 GPS 측량을 통해 트레일 노선의 정확한 위치, 고도, 경사 정보와 길 주변의 연계자원, 생태현황 등에 대한 GIS DB를 구축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 걷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Web GIS 시스템을 통해 노선과 주변에 대한 2D 지도 및 위성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지점에 대한 상세소개 기능을 통해 포토영상, 문화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지리산길 Web GIS 걷기 정보서비스

제2장

명품 마실길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 전라북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은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 선조들이 이웃마을과 논밭을 오가며 소통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용했던 옛길을 발굴하여 조정된 길임.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2~3년 후에 수풀에 묻혀 사라지며, 특히 산길은 들길에 비해 정도가 심해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임
- 향후, 이런 옛길을 복원한 마실길 노선의 수와 연장이 늘어나고 부속시설물도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마실길 조성과 병행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은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의 정비 그리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GIS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물관리체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마실길 조성 및 관리업무에 GIS기반 시설물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광역특별회계에 산으로 조성된 마실길 전 노선에 대해 GIS DB 구축이 필요함

2. IT기반 Safety-탐방환경 조성

- 마실길은 한적하고 인적인 없는 숲속과 들판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탐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난 등 안전사고나 뱀, 벌 등의 독충에 물리는 사고의 위험이 따르지만 단독 또는 가족단위의 소규모 탐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걷기 위주의 탐방문화는 숲속 길을 오랜 시간 단독으로 걷는 경우가 있으며 혼자서 걷는 재미 또한 탐방의 매력 중에 하나임. 그러나 단독 탐방의 매력 이면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존재하며 심지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도보탐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단독 탐방이나 가족 단위의 탐방객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탐방활동을 위한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9 응급구조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마실길 전노선을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탐방객 대부분이 휴대하고 있는 핸드폰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융합한 u-마실길 Safety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3. 모바일기반 마실길 관광정보체계 구축

- 전국적인 걷기 문화의 열풍으로 정부 및 각 지자체는 길 조성 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2~3년 내에 도보여행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며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여행이 증가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와 관광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탐방객이 도보여행 마니아(mania)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¹⁾에서 제시한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변화』중에 도보여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트렌드로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 확산」임. 이는 여행과 건강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웰빙관광의 확산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헬스투어리즘 관련 관광소재 발굴 및 여행코스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최근 미디어 융합화에 따른 모바일 기반 관광비즈니스 개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시대 관광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통신기술을 통해 방송, 뉴스뿐 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산업콘텐츠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관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2010

광, 의료, 등 전통산업과 통신산업의 통합 또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RFID, 4PL, e-health,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m-banking, e-learning, e-government, m-portal)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상황에 이르게 됨

- 즉, 무선 모바일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 SNS)²⁾가 주도하는 관광 시대에 맞게 모바일기반 마실길 관광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실길의 주요관광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누구나 화면으로 현지상황을 볼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해야함.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³⁾ 기술을 도입하여 마실길을 가상관광(virtual tourism)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의 관광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해야함



〈그림 4〉 구글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증강현실여행가이드”

2) 온라인 인맥구축서비스이며 트위터, 싸이월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최근 스마트폰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변 맛집이 검색되고 식사 중 맛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은 가게의 위치와 서비스정보까지 접할 수 있어 향후 관광 서비스 분야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3)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제 3 장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세부 내용

1. 마실길 탐방정보 GIS DB 구축

- 마실길에 대한 탐방안내를 위해 길을 걷는데 참고가 되는 구간 거리와 경사, 노면재질 등의 걷기 정보와 경관, 문화, 관광, 역사 등의 연계 자원 및 위험지역 등의 관광정보에 대한 조사측량을 통해 마실길 탐방정보 GIS DB 구축
- 마실길 기존 지리정보 데이터 구축
 - 마실길조사자료를기준으로 지리정보 데이터구축
 - 마실길 시설물 GIS DB 구축
 - 기존 탐방자원에 대한 기 구축 자료 수집 및 마이그레이션 구축
- 마실길 코스정보 DB 구축
 - 마실길 노선에 대한 GPS 측량을 통한 마실길 지형정보 구축
 - 구간거리, 경사, 표고, 3D 지형정보 구축
 - 마실길 코스 주변 포토 존(포토 포인트)정보, 숙소 정보, 맛집정보 DB구축
- 마실길 주변 연계자원 DB 구축 및 연계통합
 -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자원(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 및 관광 자료의 연계 구축을 통한 관광자료 서비스 구축
 - 체험관광(Experiential Tourism) 자원(문화체험, 생활체험, 특이체험 등) 발굴 및 연계구축
 - 생태환경(Eco-Tourism) 자원(동식물군) 조사 및 연계구축
 - 생태관광자료 구축을 위한 동식물자원 등 자연자원 자료 콘텐츠 구축

- 마실길 로드뷰 영상 촬영 및 자료 구축
 - 마실길 주변 360도 파노라마 촬영
 - 주요 지점(관광지, 화장실, 관리사무실 시설 등)에 대한 내 외부 현장 입체 촬영 실시

2. 웹기반 마실길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웹 GIS기반 마실길 유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시·군에 조성된 마실길 노선 및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시설물 정보 기반유지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향후 데이터 추가 구축 및 갱신을 위한 Web 기반 자료입력 툴 개발
 - 웹 GIS 기술을 채택한 노선 및 시설정보 조회, 검색, 통계자료 생성 등 마실길 조성 및 유지관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시스템 구축
- 마실길 종합정보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 고객 중심적 메뉴구성과 사용자 중심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및 마실길에 대한 홍보효과 증진
 - 외국인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영문 사이트를 별도 개발 서비스
 - 마실길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트위터 개념의 실시간 게시판 기능 개발 적용(즉, 마실길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단문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여행자로 하여금 주변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토존, 맛집, 숙소, 정보를 별도로

- DB화 및 서비스
 - 방문자수, 회원 로그인 정보, 매뉴별 접근 수, 게시물 건수 등을 집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 기능 개발
- 산책길 영상(로드뷰) 서비스 구축
 - 마실길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로드뷰) 서비스 제공
- 지도와 연동하여 마실길 영상 화면을 이동하는 서비스 구축
- 마실길 영상 서비스 주요 기능으로 파노라마 기본기능, 지명/시설명 표시, 지역정보, 방위 표시, 지점 이동기능, 검색기능 구현



〈그림 2〉 지리산길 Web GIS 걷기 정보서비스

3.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구축

- Mobile Web Site 구축
 - 스마트 폰으로 Web Site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가능한 Mobile web site 구축
 - GIS 기본기능을 활용하여 POI(Point of interest) 정보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서비스
 - 에어 태그 형태로 서비스 주요 지점에 대한 가능한 증강현실 서비스 구축
 - 중요지점(관광지, 주요시설) 대한 Push 서비스
-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스마트 폰 화면 사용자인터페이스 개발
 - Mobile web site와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계
 - Mobile web site의 각종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 내에서 손쉽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서비스 지역내 사용자가 WIFI망/3G⁴⁾망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
- 마실길 전체에 대한 산책길 360도 파노라마 영상 서비스
- Mobile용 마실길 영상 서비스제공
- 증강현실 서비스 어플리 케이션 개발
 - 마실길 주요 지점에 대한 증강현실용 위치 DB구축
 - Web GIS에서 구축한 POI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구현
 - POI와 연관된 각종 세부 정보 보기
 - 마실길 내에서 수집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 정보제공(날씨 관련등)
 - 사용자간 정보공유 서비스(마실길 후기 감상평 및 SNS 지원)

4) WIFI는 전파나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보통 무선랜이라하며, 3G는 3세대 이동통신기술로 음성데이터와 메일, 메시지 등 비음성데이터를 모두 전송할수있는 기술임



제 4 장 사업 추진 방안

1. 핵심 성공요소

- 마실길 사업 핵심성공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마실길은 관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어 하드웨어인 길 개통 및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시·군간의 마실길 연계코스 개발, 길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그리고 마실길의 탐방환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투자 및 관심이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마실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마실길은 2013년까지 5개년동안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지만 정부나 인접 타지자체의 길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뿐 만 아니라 시·군 및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고 걷고 싶은 노선의 발굴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 기본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둘째, 길은 알려야 하며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길과 길주변의 특징적인 요소나 여행정보 등을 길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최근의 관광 트렌드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u-IT 기술과 관광 콘텐츠(contents)를 융합하여 여행객들에게 길에 대한 고도 및 위치, 영상, 날씨, 도로교통, 주차 등의 실시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마실길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도보여행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 기반구축 단계
 - 마실길 탐방정보 GIS DB 구축 등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주요내용 추진으로 유지관리 업무지원 및 탐방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시범구축 대상 노선은 2010년에 광특사업으로 조성되는 450km의 마실길 중에서 광역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백두대간길, 모악산길, 서해안길을 합쳐 약 210km 구간을 시범구축노선으로 선정

〈표 1〉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

단 계	기 간	추진 내용	대상노선
기반 구축	2011년	마실길 탐방 정보 GIS DB 구축 web 기반 마실길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모바일 스마트폰 서비스 구축	백두대간길, 모악산길, 서해안길 총연장 210km 마실길 전 노선
확산 및 고도화	2012년 ~ 2013년	마실길 탐방 정보 GIS DB 추가 구축 및 갱신 u-모바일 마실길 다중언어 안내서비스 구축(영·일·중)	우수 명품마실길 선정을 통한 u-마실길 안내서비스 구축

- 확산 및 고도화 단계
 - 전라북도 마실길 전 노선에 대한 마실길 탐방 정보 GIS DB 확대 구축을 통해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활성화
 - 우수 마실길을 선정하여 u-모바일 다중언어 안내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안내·홍보 및 국제적인 관광상품화

3. 추진주체 및 사업비 확보 방안

- 사업추진 주체는 1단계는 전라북도가 직접 주관하되 2단계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 이관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의 시책사업이며 시·군은 전라북도의 광특예산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군비를 50:50으로 투입하여 관할 지역 내의 마실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노선선정의 경우 광역노선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노선 발굴 및 검토 부분을 수행하였음. 반면에 시·군 마실길 노선의 경우 시·군에서 노선발굴부터 조성사업까지 모든 사업을 총괄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구축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체 마실길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단계 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보다는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2단계 확산 및 고도화 단계의 경우 u-모바일 다중언어 안내서비스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시·군 마실길 노선에 대한 사업은 시·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정부부처의 제안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확보
 -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사업은 광역시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길사업의 선도적인 사례임. 따라서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에 향후 3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걷는 길을 조성하는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사업임
 - 따라서 정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새만금 관광과 연계하여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최근의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도보여행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급속한 스마트 폰 보급 확대에 맞추어 u-IT 기반의 마실길 정보서비스의 참신성과 길 관련 선도사업으로 부각시켜 국비지원을 이끌어야 할 것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크게 마실길 관련 DB 구축범위와 IT 관련 서비스 구축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으며, 용역부문과 하드웨어 구축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산정해야 하나 서버 등 하드웨어 비용은 기 도입된 장비를 활용
 - 재원구성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분담하는 안이 적절함. 국비의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 사업제안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실길 조성사업의 예산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표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단위(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총괄예산
사업기간	2011년	2012~2013년	3년
소요예산	10억	15억	25억
재원조달 방안	국비(40%) 4억 도비(40%) 4억 시·군비(20%) 2억	국비(40%) 6억 도비(20%) 3억 시·군비(40%) 6억	국비(40%) 10억 도비(28%) 7억 시·군비(32%) 8억

4. 기대효과

- 마실길 사업의 홍보를 통한 걷기 문화의 대국민 확산 기반마련과 u-IT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공으로 새로운 차원의 관광트랜드 형성
- 타 지역에 비해 한발 앞서 u-마실길 도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보여행객을 적극 유인하고 예향천리 마실길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도약기반 마련
- 도보여행의 증가를 통한 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일조

부록 1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 사례



U-남도 여행길잡이 구축사업

1. 사업 목적

-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통합한 유비쿼터스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으로 남도 통합 관광 안내서비스 표준화 및 선진화 추진
 - 남도문화권을 통합한 '원스톱 관광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및 해외 관광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종합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IT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마련
 -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길찾기 서비스 및 관광지리정보 제공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0 F1 국제자동차대회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및 『2010 F1 국제자동차대회』, 서남권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선진형 관광정보 시스템」구축을 통한 관광·문화·레저의 총체적 IT 인프라 조성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남도만의 Only-one 관

광상품 개발 및 홍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남도관광 브랜드 확립

- 남도만의 차별화된 Only-one 관광상품(슬로시티, 영산강 황포돛배, 명량대접축제) 등을 U-tourpia 구축사업과 연계

2. 사업개요

- 시행기관 :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총사업비 : 22억원(국비 5.5억, 도비 5.5억, 시군비 11억)
- 주요 사업내용
 -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U-모바일 관광안내서비스
 - U-스토리텔링(내비게이션 관광안내서비스)
 - 원스톱 관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관광지리정보시스템(GIS)
 - 마케팅 홍보 운영(국내·외 홍보활동)
- 사업명 :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U-남도여행길잡이)
- 사업기간 : 2010. 3 ~ 2010. 12. 31
- 주관기관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JDI  Issue Briefing

